



빛고을국악전수관 목요 국악 한마당 500회 공연

광주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은 소규모 공연장과 국악기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는 국악 전용 공간이다. 특히 전통 가곡의 실재를 영상화한 독특한 무대가 인상적인 공연장에서 열리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는 다양한 장르의 국악 공연을 통해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매주 무료로 진행되는 국악한마당이 어느덧 500회를 맞았다. 서구청이 전수관을 개관한 이듬해인 2003년 5월 '토요상설공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기 시작한 2004년부터 매주 목요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한마당'에서는 판소리, 국악 관현악, 실내악, 가야금·아쟁·거문고 독주회

서구 풍암동... 2003년 시작
판소리·국악 관현악 등 다양
관객 6만 3천명...매회 100여명
내일 박지용 초청 아쟁 연주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됐고 내로라 하는 명인들도 자주 무대에 섰다. 국가 지정 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명창을 비롯해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인 주소실·박춘맹·김향순씨, 가야금연주자 성심은·성애순·문명자씨 등이 무대에 섰다. 또 젊은 감각으로 무장한 젊은 연주자들의 무대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악 한마당 공연예산은 2500만원 수준. 연간 40여회 공연을 진행하기에는 적은 액수지만 출연자의 흥을 돋우는 등 관객들의 반응이 좋아 개런티에 상관 없이 흔쾌히 출연하는 국악인들이 많다.

현재 객석수는 137석이다. 지난해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기존 156석에서 20석을 축소, 쾌적한 관람환경으로 변모시켰으며 음향 시설 등도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 국악한마당을 다녀간 관객은 약 6만 3000여명, 매회 100여명 정도가 꾸준히 찾고 있으며 특히 유명 국악인 공연이나, 풍물패 공연 때는 통로까지 관객이 들어차는 등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30여명 정도는 거의 모든 공연을 빼놓지 않고 관람하는 '열혈 관객들'이다.

개관과 함께 시작한 국악문화학교는 지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이 500회를 맞았다. 사진은 2016년 첫 무대를 장식한 '굿패 마루' 공연 모습.

난해말까지 1만 10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도 판소리, 가야금, 해금 등 8개 강좌 16개반(초급·중급) 3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 어린이 교실에는 해금과 가야금 과목에 40명이 수강하고 있다.

전수관의 또 다른 볼거리는 다양한 악기를 만날 수 있는 국악기 전시실(매주 월요일 휴관)이다. 이곳에서는 편종·편경·가야금 등 150여점의 악기를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 볼 수 있다. 매년 4000명이 찾고 있으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4일 열리는 500회 기념 공연에는 아쟁 연주자 박지용씨를 초청했다. '파문여정(波紋餘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박씨는 '유초신지곡' 중 '상령산', '한강

득류 거문고 산조에 의한 거문고 아쟁 변주', '박춘맹류 아쟁산조 간산조'를 들려준다. 김성주(장고), 양유진(거문고)씨가 함께한다.

전남대 국악과를 거쳐 우석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박씨는 제1회 춘향국악대전 기악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국립민속국악원 악장을 거쳐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지도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장용수씨는 "지금까지 꾸준히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내년에는 공연 예산을 늘려 더 좋은 무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쟁 연주자 박지용

광주서 국악 상설공연을 만나다

전통문화관 토요공연 250회
7월부터 일요일 공연 신설
'현의 노래' 마지막 주 공연

광주에서 국악 상설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이외에도 전통문화관을 들 수 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은 지난 2012년 2월 개관 때부터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오후 3시)을 열고 있다. 지금까지 250회 공연이 열렸으며 공모와 기획 공연을 절반씩 진행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2011년 전국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젊은 국악인 임현빈 명창(남원시립국악단 수

석)를 초청,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등을 들려준다.

지난 7월 3일부터는 일요일상설 공연도 신설,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숲대문 앞 야외무대(우천시 서석당)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실내 연주인 토요 공연과 차별화를 위해 야외에서 열리는 일요일공연은 역동적인 무대가 주를 이룬다.

또 공연과 더불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통문화관 도로변 일대에서는 수공예품·수제머거리 등을 판매하는 '로드마켓' 부스도 진행한다.

17일 오후 3시에는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를 초청해 흥겨운 사물놀이, 삼도설장구, 풍물판굿 등을 선보인다. 문의 062-232-1595.



전통문화관이 올 7월 신설한 일요일상설공연 참가팀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공연 모습.

가야금명창단 '현의 노래'가 진행하는 기획 공연 '속삭이는 마당'은 한달에 한번 관객들을 찾아가겠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 거리에 '현의 노래' 사무실 앞마당에서 열린다.

오는 23일에는 '여름'을 주제로 공연이 열리며 이후 '이유빈의 가야금 병창'(8월 27일), '배유빈의 가야금 병창'(9월 24일), '가을'(10월 22일) 등이 대기중이다. 문의 010-7587-05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가 문화전당에서 8월 24~28일 펼쳐진다. 올해는 국내외 82개 갤러리가 참여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트 : 광주16' 국제 미술축제로

국내 50·해외 32개 갤러리 참여...400명 1200점 출품

올해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 : 광주16'은 단순히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행사를 뛰어넘어 예향 광주를 알리는 미술축제로 꾸며진다.

8월24~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트 : 광주16'은 국내 50개, 해외 32개 갤러리가 참여하며 작가 약 400명이 작품 1200점을 출품한다.

국내 박영덕 화랑, 샘터화랑, 줄리아나 갤러리를 비롯해 프랑스 보드 앙 르봉, 갤러리 마리아 룬트 등 12개 국에서 광주를 방문한다. 갤러리 초대전은 전당 대극장 1, 2층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호응을 받았던 개인 작가부스 100개도 창조원 1, 2층 라이브러리 파크에 조성된다. 작가 114명이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고 판매도 할 예정이다.

주목할만한 부스는 대극장 1층에 마련되는 '유네스코 특별전'이다. 유네스코 정신과 만나는 미술을 선보인다는. 또한 9월2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

레를 기념하는 전시(창조원 2층)도 이뤄진다. 비엔날레 특별전은 '빛, 생명, 물질'을 주제로 국내 30명, 국외 30명이 참여해 서양화, 조각, 미디어 등 현대미술작품 약 100점을 선보인다.

'2016 조형 페스티벌', '영 아티스트전', '중국 청도도시교류전', '한국 전통민화전', '사회리더 드로잉전' 등 다양한 기획전도 펼쳐진다. '사회리더 드로잉전'은 국회의원 등 지도층인사가 직접 그린 그림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다.

눈길을 끄는 기획전은 '페차쿠차(Pechakucha) 광주'다. '페차쿠차'는 일본어로 '재질재질'이란 의미다. 8월 25~27일 대극장 내부에 마련된 공간에서 작가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작품 약 20점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밖에 개막식에서는 국내외 인사 400명이 참여하는 '8·24 광주 아토포티'를 열어 작가 교류와 문화예술 후원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김희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봉·퇴계 매개 영호남 상생 모색 '오래된 상생의 미래' 출간

호남의 고봉 기대승(1527~1572)과 영남의 퇴계 이황(1501~1570)의 교류를 매개로 영호남 상생을 모색하는 책이 출간됐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은호·철학과 교수)이 펴낸 '오래된 상생의 미래'(전남대출판부)는 빛고을 광주와 달구벌 대구가 동서 지역갈등을 넘어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

는데 관한 반성과 미래적 전망을 논했다.

2부에서는 '소통'을 주제로 김기주(계명대), 김경호(전남대) 교수가 고봉과 퇴계의 학술논의를 소통의 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3부에서는 '상생'을 의제로 정재훈(경북대), 오항녕(전주대), 오종일(전주대) 교수가 현실정치에서 파생된 갈등의 구조들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성과 의리의 관점에서 탐색했다. 062-530-0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부는 '만남'을 주제로 강정재(전남대), 박종규(영남대) 교수가 고봉과 퇴계의 만남 의미를 현재화해 지역갈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정밀농업 특산물 생산지이고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멸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